

도,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대책 추진

주 오염원 가축 분뇨 정화시설 설치·확대...우분 연료화 등 계획

새만금호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새만금 유역내 가축분뇨(특히, 돈분) 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가축분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도의 각 관공부서 가 협업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열을 곁었다

7일 전북도는 2015년도 정부의 새만금수질 중간평가에서 새만금 유역내 가축분뇨(특히, 돈분)가 새만금호의 주요오염원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전체 오염원의 1%에 불과하나 가축분뇨로 인한 BOD 부하량은 53% 수준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수준이 다른 오염원에 의한

오염수준을 다 합해도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수준과 비교하자면 약 100배에 이르는 비중이다

7일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도내 분뇨는 하루 평균 20,082t이 발생한다. 이 분뇨들 중 오염원의 요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정화처리는 농가자각처리 632t과 위탁처리에 의한 공공정화 1,389t가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매일 18,061t은 퇴비나 액비화 처리되고 있고 이는 연간 659.2만t에 해당한다.

도 농업기술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내 퇴·액비 연간 소요량은 300만t 정도이다.

특히 새만금 유역인 정읍(338t), 김제(140t), 완주(54t)의 경우 매일 532t의 초과 분뇨를 발생시키는데 반해

정화시설이 부족해 초과 발생 퇴·액비가 무단 방류됨으로써 새만금호 오염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의 가축분뇨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퇴·액비 기준치 위반 살포는 2014년 34건, 2015년 42건 등이고 농가 무단 방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7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는 7일 새만금 유역인 정읍, 김제, 완주의 경우 가축분뇨 1.102t/일에 해당하는 공공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 강화 ▲불법행위 적발업체에 대한 액비살포보조금 제한 ▲자각처리를 감축을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퇴·액비의 품질을 확보하

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유역에 설치되는 에너지화 시설을 정화처리로 유도하고 ▲2020년까지 돈분 정화처리 수준을 5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정화처리 시설 증설계획(김제, 정읍 완주)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 확대 및 장려 등을 통해 부족한 정화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축산 농가의 폐업보상사업무차리를 개선하고 ▲휴·폐업 축사 철거 확대 등을 통해 가축사육두수를 감축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2020년 새만금 담수화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며 "퇴·액비보다 정화처리로 방향을 전환해 새만금호의 비점오염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전북도선관위,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3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2억 3,0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율로 1억 6,5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가 적용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급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표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신광영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최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송하진도지사와 김승환도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 국지도·지방도 20개 지구 573억 규모 조기 발주

7일 전북도는 올해 국지도 및 지방도 20개 지구에 573억원을 투자해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상반기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 발주되는 지구는 국지도 5개지구(계숙, 신규1) 29.17km에 273억원, 지방도 15개 지구(계숙, 신규3, 보성3, 설계4) 69.63km에 300억원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전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중 도는 계곡·신덕간 국지도가 개통되면 기존의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터널 및 교량 설치 등으로 개량됨으로써 동절기 노면 동결 등 위험성이 개선되고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

/정영수기자

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2,994억원

심락농정·탄소·관광 집중 투입

7일 전북도는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예산을 민선 6기 도정 핵심과제인 심락농정, 탄소 산업, 관광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6년도 지특예산 도자율편성 2,994억원에 대해 심락농정에 1,048억원,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274억원, 관광 분야에 242억원을 편성할 바 있다.

올해는 그동안 기초를 다져온 도정 핵심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특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투자심사·부지매입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특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시 소관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편성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수기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도내 중기 '버팀목'

전북 김제에 소재한 스텐레스관 제조업체 C사는 DX에 제품을 납품한 후 5개월 있다가 현금결제받는 조건으로 수년간 스텐레스관을 납품하던 중 외상대금 4억 원을 결제받지 못해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다가 매출채권보험금 3억원을 보상받아 기사화했다.

C사 대표는 "총보험료 1,300만원을 납부했는데 약 23배의 효과를 본 것이었다"며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부담이 돼 망설였으나 보험금 수령으로 연쇄도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매출채권보험이 얼마나 우리같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새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신보 호남영업본부는 7일 지난 해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지역 963개 중소기업체에 1조1,888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올 해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132천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거래처 부실에 따른 연쇄도산 사정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구매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은 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

다. 보상한도는 계약자 업체당 80억 원까지 보상가능하다.

주동복 신보 광주신용보증센터장은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이 중소기업 33개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종업원 278명의 고용 유지와 1년에 약 108억원의 세수확보 등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또한 보상은 기업 총 총 16개 외상매출채권보대출 이용기업의 경우는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부담해야 했던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며, 대출을 해준 은행의 경우는 부실여신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보는 창업기업과 영세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보험(창업성장보험, 소기업형보험) 외에 보험 가입 후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보험료환급형보험, 보험가입기간동안 보험가입된 거래처를 교체할 수 있는 '유선형보험' 등의 신상품도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증센터와 광주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교원인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정마케팅, 나를 세운 말, 말발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 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